



해외출장 가이드

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출장자료

【 목 차 】

I. 크로아티아 개황	1
II. 크로아티아 역사 개관	3
III. 시장특성 및 상관습	4
IV. 최근 경제 및 교역 동향	6
V. 크로아티아 투자환경	10
VI. 체류안내정보	1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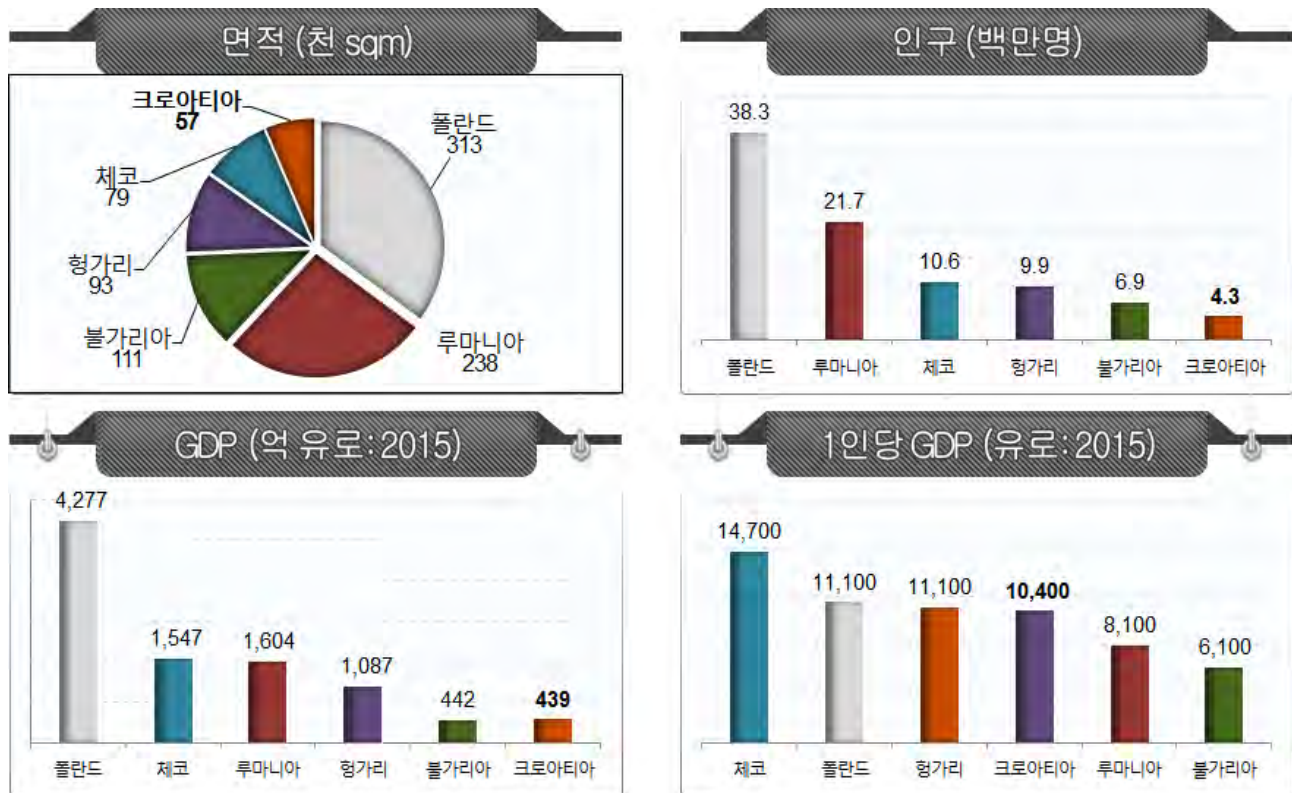


I. 크로아티아 개황

-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 해안에 인접한 관광국가로 수도 자그레브 동쪽에 위치한 슬라보니아 평원 농업지대와 북부 및 중부의 산악지대, 그리고 아드리아 해안지역으로 구분가능
- 1991년에 구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을 선언한 후 세르비아계 분리주의자와의 내전을 겪었으며 95년 미국의 전쟁개입과 데이턴 협정으로 종전
- 사회주의로부터의 체제전환 및 독립 이후 친서방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1일 EU에 28번째 회원국으로 정식가입

- 국 명 : 크로아티아 공화국 (Republic of Croatia)
- 면 적 : 56,594 km² (한반도의 1/4, 남한의 1/2 규모)
- 기 후 : 지중해성(해안), 대륙성(내륙)
- 인 구 : 423.8만명 가량 (2015년)
- 수 도 : 자그레브(Zagreb)
- 정치형태: 대통령 직선의 의원내각제
 - 대통령 (국가수반) : 그라바 키타로비치 (크로아티아민주연합: 우파)
 - 수상 (정부수반) : 티오미르 우레시코비치 (크로아티아민주연합)
- 주요도시 : Zagreb(80만명), Split (20만명), Rijeka(17만명)
- 민 족 : 남슬라브 민족에 속하는 크로아티아인(93.14%), 세르비아인(2.2%)
- 언 어 : 크로아티아어 (라틴문자 사용)
 - * 인근 세르비아(키릴문자), 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, 몬테네그로(키릴문자)에서 통용
 - * 슬로베니아어, 마케도니아어와는 같은 언어군이나 70%정도 유사
- 종 교 : 카톨릭(83.1%), 정교(2.02%), 기독교(0.32%), 회교(2.28%)
- 건국(독립)일 : 1991.6.25 (구유고 연방으로부터 독립)
- 화폐단위 : Kuna (HRK) (1 US\$=6.71 Kuna, 1 EUR=7.45 Kuna)
 - * 1 kn= 172원 상당 (2016. 7.7 기준)

<크로아티아 경제규모>



자료원 : EURO Stat('16.4월)

<구 유고연방포함시 경제 규모>

구분	크로아티아	슬로베니아	세르비아	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	몬테네그로	코소보	합계 및 평균
인구(백만)	4.238	2.062	7.129	3.825	0.622	1.823	19.714
GDP(US\$ 십억)	48.73	42.8	36.51	16.00	4,028	7,387	180.71
1인당 GDP(US\$)	11,600	24,006	5,141	4,723	7,249	3,990	약 9,000
경제성장률(%)	1.6	2.6	0.7	3.2	3.8	3.0	
소비자물가 상승율(%)	-0.5	0.2	2.1	-0.9	1.6		
실업률	17.6	9.8	20.8	27	15	45.3	22.3

자료원 : EIU, EURO Stat, World Bank (2015년 기준), 평균은 가중 평균



II. 크로아티아 역사 개관

가. 정착 및 국가 형성 (4세기~10세기)

- 4세기부터 서로마 제국의 혼란을 계기로 슬라브족의 이주 및 정착 시작
 - 현재 보스니아를 경계로 서쪽은 서로마제국 영향 하의 카톨릭 국가로, 동쪽 지역 기타 발칸국가들은 동로마제국의 영향 하에 정교 국가로 발전함.
- 10세기 들어 최초의 크로아티아 왕국 건설
 - * 최초의 왕인 토미슬라브의 동상이 현재 자그레브 중앙역 광장에 세워져있음.

나. 외세지배 하의 크로아티아 (12세기~20세기)

- 크로아티아는 이 당시 주변 강대국 오스트리아, 헝가리, 베네치아 등으로부터 침략과 지배를 겪음
- 16세기 오토만 제국의 유럽 침략으로 이슬람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어 발칸 국가는 카톨릭, 정교, 이슬람 등 3개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
 - 카톨릭 : 슬로베니아, 크로아티아
 - 정교 : 그리스, 불가리아, 루마니아, 세르비아, 마케도니아, 몬테네그로
 - 이슬람 : 보스니아, 알바니아, 코소보
- 1918년 1차 대전 직후 크로아티아 의회는 1918년에 오스트리아-헝가리 제국으로부터 분리선언
 - 세르비아 중심의 통합국가인 '세르비아-크로아티아-슬로베니아 왕국' (1929년 "유고슬라비아 왕국"으로 개칭)에 가담

다. 20세기 이후 : 유고슬라비아 시절과 독립 (20세기 이후)

-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에 티토가 이끄는 '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'에 편입되어 공산독재체제가 1980년 티토의 사망 시까지 지속
 - 냉전 붕괴시기인 1989년에는 민족주의 열풍이 확산되면서 급격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
- 1990년 봄 크로아티아의 자유선거 실시로 투즈만의 크로아티아 민주연합 (HDZ)이 승리, 1991년에 독립 선언 이후 내전에 직면
 - 1995년 데이턴(Dayton)협정으로 내전종식으로 오늘날의 평화체제 정착



III. 시장특성 및 상관습

가. 시장특성

- **(소규모 시장)** 분리독립 후 구 유고슬라비아가 보유하고 있던 규모의 경제 효과를 잃으면서 시장규모 축소
 - 높은 소매상 마진, 부가가치세(25%)로 인해 시급한 생필품이나 식품이외에는 인근 지역에서 여행 시 구매하는 성향도 강함.
 - 그러나 구유고부터 이어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에이전트가 수입시장을 주도하며 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, 세르비아 시장까지 관할하는 경우도 있음
- **(유럽의 안마당)** 구유고연방 분리국가와 밀접한 상권유지하면서 이태리, 독일,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국가와의 교역 활발
 - * 구유고 연방 국가 : 슬로베니아, 크로아티아, 세르비아, 몬테네그로, 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, 마케도니아, 코소보 등 총 7개국
 - 대부분의 공산품은 소규모 수시오더 가능성, 신속한 딜리버리, A/S 및 마케팅 지원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인근 서유럽국가로부터 수입
 - 유럽에 현지법인, 물류창고나 지사가 있는 공급업체 선호
 - 한국산, 일본산 가전제품의 경우 대부분 유럽내 공장, 중국, 동남아 등 간접경로를 통해 수입
- **(소비시장)** 조선 등을 중심으로 일부 전략제조업 분야가 존재하나, 관광산업이 가장 활발하여 전반적으로는 제조시장보다는 소비시장의 특성이 강함
 - 관광(GDP의 20%), 식품, 의약, 정유, 조선
 - * 외국관광객수 : 2015년 1,434만명 방문(독일, 슬로베니아, 오스트리아 순)
- **(대형유통망 확대)** 식품은 토종 기업인 Konzum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, 비식료품 분야는 외국자본인 InterSpar, Metro, Billa, DM 등의 대형유통망이 확대되는 경향
 - 일반 소비재의 경우 대형유통망을 통한 진출 필요
- **(소비성향)** 과거 독립전쟁에 따른 경기침체, 실질소득 격감 등으로 구매력이 크게 위축되어 저가품 위주의 구매성향이 강하나,
 - 유명 브랜드 선망의식이 강하여 저가품과 고가품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.



나. 상관습과 현지 민심

- 크로아티아인들은 문화적 자존심이 상당히 높아 크로아티아가 소련 주도하의 동구권(Eastern Bloc), 발칸국가(Balkan Countries)로 분류되는 것을 싫어하며 **중남부 유럽(Central Europe) 국가로 인식되는 것을 선호**
 - 상거래 혹은 협상 중 크로아티아를 발칸 국가, 동구권 국가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- 시장규모가 적어 소량 주문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구매습관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최소 주문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
 - 다품종 소량 주문에 적극 응하면서 거래개시 필요
 - 물류창고를 설치하거나 혹은 동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바이어 물색 필요
- 크로아티아 비즈니스맨의 경우, 전반적으로 신실한 편이나, **업무처리/의사결정 속도가 느린 관계로 거래 성사를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편**
- 지불조건관련, 일람불 신용장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신용이 쌓아 T/T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 있음
- 크로아티아인의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상담시 각종 스포츠관련 화제를 시작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
 - 특히 축구에 대한 인기와 관심도가 높은 편이며, 이외에 핸드볼, 농구 등의 집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
- * 2016년 현재 Luka Modric(레알 마드리드), Mario Mandzukic(유벤투스), Ivan Rakitic(바르셀로나) 등의 다수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서 활동 중

다. 한국에 대한 인지도

- 크로아티아 국민 대다수가 한국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인지도와 국가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편
 - 현대, 기아, 대우(GM) 등 한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이 11%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며, 핸드폰은 삼성 Galaxy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, TV 등 한국산 가전제품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, 한국산 품질 관련 높은 인지도 형성에 기여
 -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경험에 대한 선망의식이 있으며, 정부 및 정치권에서도 한국기업 투자유치 등에 관심



IV. 최근 경제 및 교역 동향

가. 개 요

-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 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 및 중동 부유럽의 물류 기지화를 추진 중
- 91-95년까지의 독립전쟁에 따른 제조업 퇴보 및 국가분할로 인한 시장 상실로 경제 규모가 크게 위축됐으며, 비효율성·관료주의 등 과거 사회주의 시절의 비합리적 관행 잔존
-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으며, 이 같은 추세는 2014년까지 지속되었고, 2015년 1.6% 성장으로 전환
-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, 투자환경 개선 등 지속적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, 2013년 7월 EU 가입을 계기로 EU-펀드를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및 외국인투자가 확대되어 새로운 경제발전의 계기를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* EU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에 지원될 EU 펀드 규모는 2014-20년간 106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

나. 주요 경제지표

구분	2011	2012	2013	2014	2015
GDP(백만 유로)	44.737	43.959	43.516	43.045	43.921
GDP 성장률(%)	-0.3	-2.2	-0.9	-0.4	1.6
1인당 GDP(유로)	10,453	10,300	10,225	10,157	10,364
외채(백만 유로)	46,397	45,297	45,958	46,664	45,534
외환보유고(백만 유로)	11,195	11,236	12,908	12,688	13,707
실업률(%, ILO)	13.7	15.9	17.3	17.3	16.3
물가상승률(%)	2.3	3.4	2.2	-0.2	-0.5
외국인투자 (Net Incurrence of liabilities)	1.018	1.136	710	2,896	666
평균임금(EUR)	1,035	1,044	1,040	1,040	1,059
환율(HRK/EUR)	7.4342	7.5173	7.5735	7.6300	7.6096

자료원 :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및 통계청, 재무부



다. 크로아티아 대외무역동향

- 크로아티아의 2015년도 총수입액은 206억달러로 전년 대비 9.8% 감소하였음.
 - 주요 수입국가로는 독일, 이태리, 슬로베니아, 오스트리아, 헝가리 순임.
 - * 주요 수입품목 : 원유, 기계류, 전기제품, 차량, 플라스틱, 의료용품, 철강제품
- 크로아티아의 수출액은 2015년 130억 달러였으며 전년대비 6.6% 감소하였음.
 - 주요 수출대상국가로는 이태리, 슬로베니아, 독일, 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 등
 - * 주요 수출품목: 정유, 기계류, 전기제품(변압기등), 목재류, 의류, 가구 등
- 크로아티아의 교역량은 2008년까지 매년 17-18%씩 증가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조금씩 회복중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
수출 (US\$백만)	11,535	13,375	12,377	12,671	13,836	12,930
수입(US\$백만)	19,975	22,707	20,724	22,016	22,810	20,578

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

라. 한국-크로아티아 간 교역동향

1) 우리나라의 대크로아티아 수출입 현황

- 2015년 : 양국간 교역량 3억 1천만 달러

(단위:US\$천)

기간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.9
수 출	117,762	79,404	49,784	46,307	93,728	299,912
수 입	19,352	20,296	20,702	16,603	15,328	9,987
무역흑자	98,410	59,108	29,082	29,704	78,400	289,925

자료원 : 한국무역협회

2) 최근 교역동향 및 특징

-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의 교역규모는 2015년 기준 3.1억 달러
 - 20013년 최저치 기록이후 회복 중으로 2015년에는 약 3억 달러까지 확대되어 양국 교역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



-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인근 유럽국가, 중국, 동남아 현지 공장을 통한 간접수출(약 5억불)이 활발
 - 삼성전자, LG전자, 현대자동차 디스트리뷰터 등
- 우리나라의 대 크로아티아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, 의약품, 합성수지, 철구조물, 승용차 등에 집중
 - 동 품목의 수출이 우리나라의 대 크로아티아 수출금액중 약 88.4%를 차지
 - * 전자제품, 핸드폰, 자동차의 경우 현지 또는 제3국 생산에 따라 비중이 작게 나옴

<한국의 대 크로아티아 주요 수출품목>

(단위 : US\$천)

순위	HS코드	품목명	2014년		2015년	
			수출금액	수출증감률	수출금액	수출증감률
1	89	선박	0	-	161.083	-
2	30	의약품	56.773	679.8	87.341	53.8
3	39	합성수지	10.172	12.0	17.382	70.9
4	84	원자로, 보일러	6.719	30.3	9.789	45.7
5	73	철 구조물	544	271.8	5.513	913.6
6	87	자동차 및 부품	3.658	-53.1	4.475	22.3
7	85	방송용통신기기	2.262	3.3	3.796	67.8
8	90	의료용기기	2.980	66.5	3.713	24.6
9	29	유기화합품	1.183	-63.1	1.050	-11.2
10	72	철강	2,522	-36.6	971	-61.5
11	55	섬유, 직물	539	73.5	878	62.8
12	40	고무	1,491	-6.4	654	-56.2

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

- 크로아티아로부터의 주종 수입 품목은 전기부품·TV·음향, 의류, 수중장비 등의 비중이 크고, 전기로, 계측기, 참치, 어육 등 소량 수입되고 있음.

<한국의 대 크로아티아 주요 수입품목>

(단위 : US\$천)

순위	HS코드	품목명	2014년		2015년	
			수입금액	수입증감률	수입금액	수입증감률
1	85	전기기기와 그 부분품	6.555	13.4	4.317	-34.1
2	61	메리야스, 의류	742	27.1	1.065	43.5
3	03	어류, 갑각류, 수산	2.266	69.1	1.024	-54.8
5	90	의료용기기	716	1317.3	565	-21.2
6	84	원자로, 보일러	1,827	48.1	424	-76.8
7	64	신발류, 모자류	259	23.0	317	22.2



8	12	종자, 과일	119	10.2	228	91.3
9	29	유기화학품	106	-40.4	202	90.0
10	10	곡물	0	-	198	-
11	73	철 구조물	124	-5.2	135	8.5
12	42	가죽제품	99	-2.9	122	24.0

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

3) 향후 한·크 무역 전망 및 시사점

- 크로아티아 소비자들은 한국산 자동차, 가전제품, 휴대폰 등에 대하여 품질, 디자인 등에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향후 한국산 제품의 시장진출은 계속 확대될 소지가 많음.
-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유럽내 물류기지 공동 사용을 통한 신속한 딜리버리 체제 구축, CE Mark 및 크로아티아 인증획득, A/S지원 등에서 유럽 공급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함.
 - 중소기업 수출유망분야 : 의료기기, 의약품, 다이아몬드공구, 합성수지, 강판 등
- 또한 향후 EU 추가확대에 대비한 투자지역 다변화와 구유고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크로아티아나 구유고지역에 현지 공장설립이나 물류기지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.
- 더 나아가 크로아티아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·제도 개정에 착수하고 있어, 우리 업계의 투자 진출시 다양한 인센티브 수혜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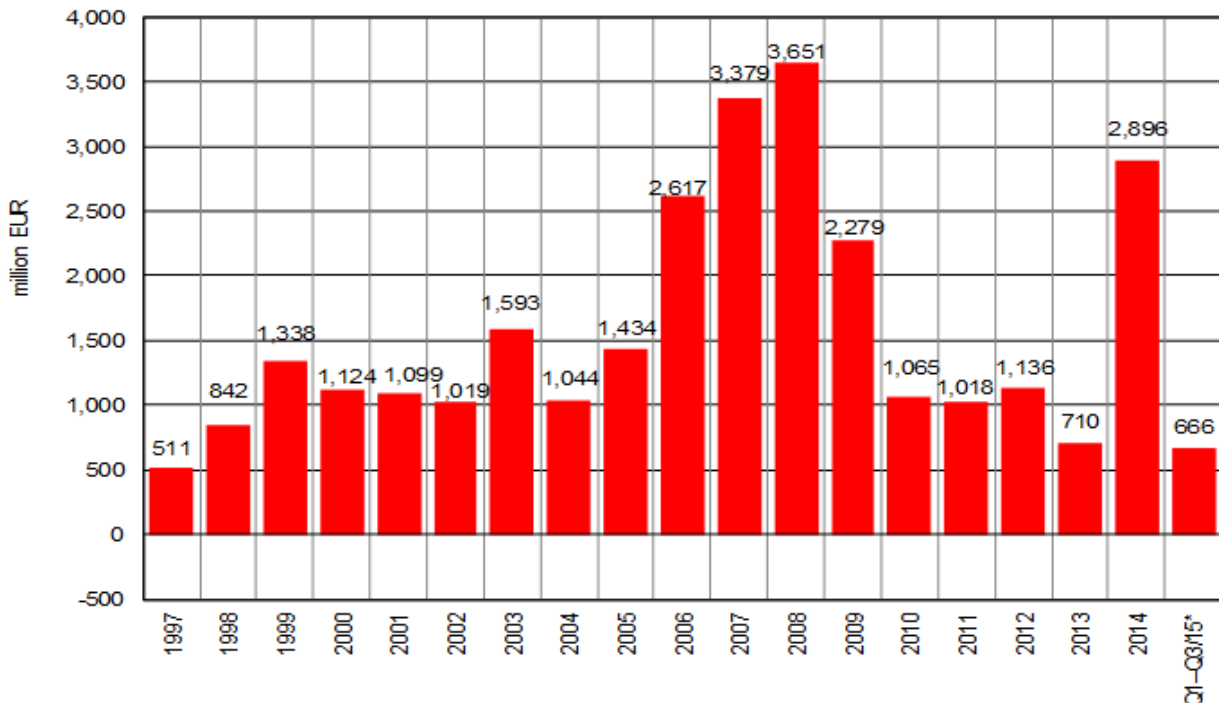
V. 크로아티아 투자환경

가.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

- 크로아티아의 외국인 투자유치액은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총 296억유로
- 2009년 들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침체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4년부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추세

<연도별 크로아티아 외국인 직접투자동향>

(단위:백만 유로)



자료원: 크로아티아 중앙은행

- 주요 투자국은 오스트리아, 네덜란드, 독일, 이탈리아 등 인근 EU 국가이고, 업종은 금융, 유통, 부동산, 통신, 석유화학 등으로 크로아티아 시장 장악
- 한국뿐 아니라, 일본, 중국의 투자도 매우 미미한 상황



※ 자료원 :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(2014년 기준)

- 주요 외국인 투자형태는 여타 동구권 국가와는 달리 그린필드 투자유치가 저조한 반면,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지분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

나. 투자대상지로서의 장단점

- **(EU 및 동구시장 접근 용이)** 2013년 7월 EU에 가입하면서 EU 및 동구시장 접근이 용이하며 구유고연방국가(슬로베니아, 세르비아, 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 등)뿐 아니라 헝가리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 등에 차량 및 철도로 쉽게 접근 가능
- **(양질의 인력 및 낮은 기업운영비)** 문맹률이 0.8%에 불과하고, 40세이하 인구의 77%가 영어구사 가능하며, 유럽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비 부과(사무실임대료, 전기, 가스, 상수도 등)
- **(협소한 내수시장)** 인구 430만명의 소국으로 내수시장이 협소하여, 주변국 및 유럽 인근국가 진출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**(관료주의, 사법체계의 낙후성)** 과거 사회주의 잔재가 많이 남아 정부의 관료주의, 부정부패, 낮은 법률변경, 허가절차 지연 등의 문제가 있음
- **(높은 세금체계 및 복잡성)** 25%의 높은 부가세는 크로아티아 자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, 법인세는 20%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윤에 대한 과실송금 또는 주식배당시 12%의 원천징수세를 추가로 부담하여 세금이 높은 수준



다. 한국의 대 크로아티아 투자는 이제 시작단계

- 2015년 8월기준 크로아티아에 대한 한국기업의 직접 투자는 삼성전자 판매법인(구유고연방 관할)이 유일할 정도로 한국기업의 투자가 저조한 상황
- 개인차원에서 한국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한 투자가 최근 확대 추세에 있음

(단위: 건 천 \$)

연도	법인구분	업종대분류	신고건수	신규법인수	신고금액	송금횟수	투자금액
2012	현지법인	숙박 및 음식점업	2	0	835	0	0
2013	현지법인	숙박 및 음식점업	1	0	285	0	0
2014	현지법인	숙박 및 음식점업	3	4	120	4	399
	현지법인	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	1	1	37	1	37
2015	현지법인	숙박 및 음식점업	1	0	50	0	0
합계			8	5	1,327	5	436

※ 자료원 : 한국수출입은행

※ 삼성전자 아드리아틱 지사(구유고연방 판매) 자그레브 소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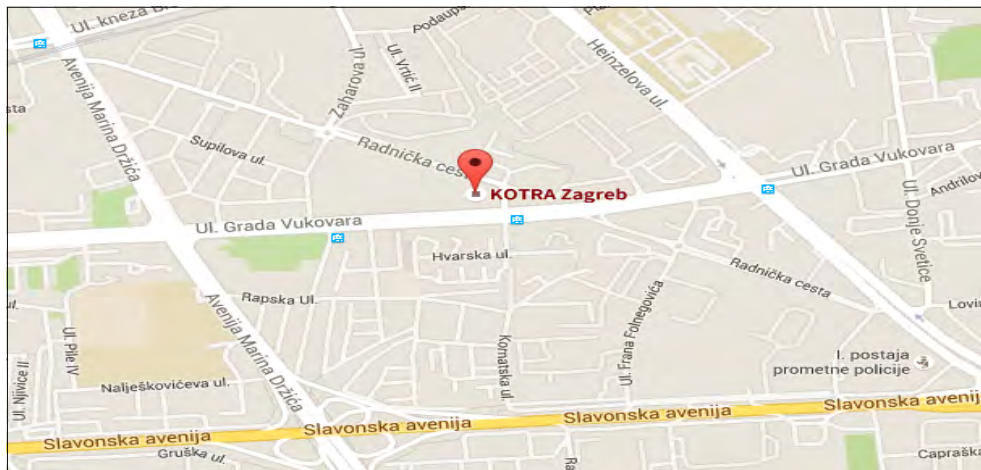


VI. 체류안내정보

1. 주요 연락처

대 상	연 락 처	비 고
자그레브 무역관	TEL : (385-1) 4815-101 FAX : (385-1) 4818-821 E-mail : kotra@koreatrade.hr	자그레브내에서 전화시에는 1을 누를 필요 없이 7자리 숫자만 사용.
김관목 관장	Cell: (385-91)530-5451	
양경순 과장	Cell: (385-91)509-2936	
콜택시	1212	
한국대사관	(385-1) 482-1282	엄원재 영사
호텔정보	Double Tree by Hilton 주소: Ulica grada Vukovara 269a Zagreb 전화: (385) 1 600 1906 홈페이지: zagreb.doubletree.com	객실 요금: 싱글(115유로) 트윈(115유로) *VAT, 조식 포함 *City tax 미포함(1유로/일) *상담장 및 객실 무료 Wifi

※무역관 오시는 길



주소: Ulica grada Vukovara 269F(그린골드 빌딩 3층)

근무시간: 월-금요일 08:30-17:00

○ 위치

자그레브무역관은 최근 신규 오피스 단지가 밀집되고 있는 부코바라(Vukovara)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, 자그레브공항에서 약 15km 거리에 있으며 택시 또는 버스를 통해 방문 가능



○ 방법

<택시 이용> 약 200쿠나(환화: 3만 5천원)를 지불하면 공항 청사 앞 택시를 이용, 그린골드 빌딩(Green Gold)을 안내하면 어렵지 않게 찾아올 수 있음. 대부분의 택시 기사는 영어 소통 가능

<버스 이용> 공항버스를 이용(30쿠나)하여 자그레브 시내 종점(Central Bus Terminal)에서 하차,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

※ 대사관

○ 주소 및 연락처

- 주소: Ksaverska cesta 111/A-B, 10000 Zagreb, Croatia
- 전화: 385 1 482 1282
- Email: croatia@mofa.go.kr
- 홈페이지: <http://hrv.mofa.go.kr/>

2. 현지 날씨

- 7-8월 평균 낮 기온은 약 30도로, 여름 날씨를 보이며 복장은 국내와 동일
- 1-2월 평균 낮 기온은 약 2-3도로, 겨울 날씨를 보이며 복장은 국내와 동일

3. 간단한 현지회화

- 아침인사 : Dobro Jutro 도브로 유뜨로
- 낮 인사 : Dobar Dan 도바르 단
- 저녁인사 : Dobro Vecer 도브로 베체
- 고맙습니다. : Hvala 흐발라
- 네/아니요 : Da 다/ Ne 네
- 얼마입니까? : Koliko Kosta 콜리꼬 코슈타?
- Please, (Excuse me!) : Molim Vas 몰림 바스
- 좋습니다 : Dobro 도브로
- 미안합니다 : Oprostite 오쁘로스티테
- 헤어질때 인사 : Dobidjenja 도비제냐



4. 체류시 유용한 정보

- 긴급상황시 연락번호
 - 긴급상황신고 및 구조요청(통합): 112
 - 경찰: 192, 화재: 193, 도로교통사고: 1987
 - 응급의료 및 병원정보(구급차 요청): 194
- 젊은층과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나 영어간판, 영어안내문 등은 없음.
 - 중장년층의 경우, 영어 구사가 안되는 경우가 많음.
- 현지 교민은 대사관, 코트라, 삼성법인, 유학생 등을 포함하여 약 110명 정도임.
- 한국식당과 한국식품점도 운영하고 있음

상호명	주소	연락처	비고
크로케이(Cro.K)	Pod Zidom 4	385 1 4819 525	한식당
온새미	Kneza Mislava 1A	385 99 467 0701	한식당
라운	Draskoviceva Ulica 36	385 95 8312 486	한국 슈퍼

- 치안은 매우 양호한 편이며 소매치기나 관광객 상대 범죄는 거의 없음.
- 환전
 - 은행 및 시내 환전소를 통해 가능하며, 은행과 환전소의 수수료 차이는 거의 없음
 - 현지 환전소 간판명은 'MJENJACNICA'임
- 약국 : 녹색십자가 표시된 Ljekarna 표시되어 있는 곳이 약국임.
- 대중교통
 - 트램(전차):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1회 탑승요금은 10KN이며 90분 이내에는 환승이 가능. 정류장 주변의 신문가판대(TISAK)에서 승차티켓 구입가능.
 - 택시이용 : 콜택시를 부르거나 (전화번호: 1212) 호텔앞이나 거리에서 빈 택시가 있으면 바로 탑승가능. 기본요금은 19KN (약 3,800원)이며 1km당 7KN (1,400원) 씩 가산됨. 한국보다는 택시가격이 다소 비싼 편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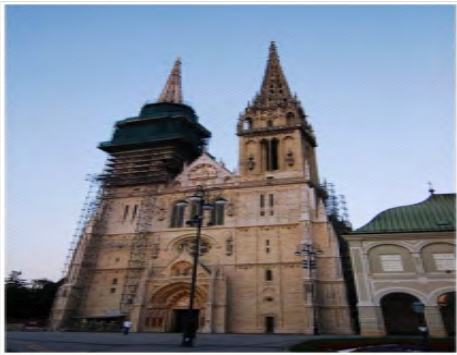
- 식수 : 현지인들은 수도물을 직접 마시기는 하나 석회석이 다량 함유된 경수로서 생수를 구입, 음용하는 것이 바람직
- 국제전화사용
 - 한국에 전화시 : 00-82(국가번호)-지역번호-전화번호
 - 수신자 부담전화시 : 지역번호없이 901를 누르면 한국측과 연결해 주는 교환원과 연결되며 국가명, 전화번호, 수신자(상대방) 이름을 알려 주면 수신자부담으로 연결해 줌.
- 한국과의 시차
 - GMT+1로 한국에 비하여 8시간 늦음
 - 3월 마지막 주 일요일~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동안은 섬머타임을 실시하여, 7시간 늦음
- 쇼핑
 - 시내 및 시외곽에 백화점, 쇼핑몰, 기타상점이 있어 필요한 물품은 불편함 없이 구입 가능
 - 개점시간: 통상 월-금 10:00-20:00(토요일에는 오후 1시 또는 3시 경에 폐점)



5. 관광 정보

- 크로아티아는 남동유럽의 대표적 관광지
 - 대표적인 관광 도시로는 스플리트, 두브로브닉 등
 - 1979년 유네스코는 두브로브닉 올드타운, 스플리트의 디오클레티안 궁전, 호수공원으로 유명한 플리트비체 공원을 세계문화유산 리스트에 등재
- 자그레브 관광지로는 성 스테판 성당, 성 마르코 교회, 성 카테리네 교회 그리고 자그레브의 중심가인 트르그 바나 엘라취츠 광장이 있음.

<성 스테판 성당(Kaptol)>



12세기경 창건된 이 후 1242년에는 몽골리안의 침입이 있었고 1880년에는 지진이 발생하여 여러 번 수난을 당한 건물임. 108m의 쌍둥이 첨탑은 19세 기 후반에 네오 고딕 양식으로 올려졌고 사원의 분위기는 바로크 양식을 취하고 있음.

<성 마르코 교회>



시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며 교회의 지붕을 보면 화려한 모자이크로 왼쪽의 휘장은 크로아티아를 상징하고 오른쪽은 자그레브를 상징 함.

크로아티아의 NATO가입을 앞두고 2008년 5월, 크로아티아 최초로 미국대통령(부시)이 방문하여 연설한 장소로도 유명함



<플리트비체>



1949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약 3만 ha의 넓이의 호수 공원. 총 16개의 호수가 층층계단을 이루고 각 호수는 약 90개의 폭포로 연결되어 장관을 이룬다.

또한, 석 회침전물을 생성하여 1200 여종의 희귀식물들이 서식하기도 함. 7세기부터 인간이 거주하고 있었고 세상에 알려진 시기는 15세기경임.

<두브로브닉>



“아드리아해의 진주”로 불리는 두브로브닉은 13세기경 건설된 중세시대 백색도시. 당시 베네치아의 경쟁자로서 상업도시로 발전했으며 현재 아드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서 UNESCO에 등재.

시가지는 1940미터 길이의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 축성은 13세기에 디자인되어 17세기에 완성.

<스플리트>



스플리트는 크로아티아의 제2도시(인구 약 20만명)로 중부 달마시아 지역의 경제, 행정 중심지임.

로마제국의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궁전을 건립했으며 궁전 사방에는 4개의 대문이 있고 16개의 타워로 축성되었는데 그 모양새가 로마군 캠프와 유사.



www.kotra.or.kr